
 금융위원회	<div>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</div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2022.1.17.(월) 조간	배포	2022.1.14.(금)	<div>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</div>
책 임 자	금융위원회 FIU 제도운영과장 김 성 진(02-736-1750)		담 당 자	김 천 현 사무관 (02-736-1751)	
	금융위원회 FIU 가상자산검사과장 이 동 욱(02-736-1740)			김 준 환 사무관 (02-736-1742)	
	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이 훈(02-3145-7500)			박 상 현 팀 장 (02-3145-7502)	

## 제 목 : 효과적인 검사·감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 ('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)

- ◆ 한정된 검사자원을 **전자금융·대부업자** 등 신규·취약부문에 우선 집중
- ◆ **상호금융중앙회 현장점검**을 통해 위탁검사업무 역량 및 전문성 제고
- ◆ **가상자산사업자 검사**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주력

### 1 추진배경

□ '19년 이후 「특정금융정보법」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자·대부업자 등으로 지속 확대되어 FIU 검사대상\*이 늘어나는 가운데,

\* 전자금융·대부업자('19.7월), P2P사업자('21.5월) 등

- 금융거래의 디지털화,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·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점증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,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에 이어,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.

➡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하여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·활용하기 위해 '검사업무 운영방향\*'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\* 우본(우체국), 관세청(환전업자) 등 위탁검사를 제외한 FIU·금감원 검사대상 기준

- ✓ 신규·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FIU 직접검사 확대 (검사밀도 제고)
- ✓ 검사수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탁검사업무 역량 강화
- ✓ 신규 업권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

① **(신규·취약부문)**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규 및 고위험 부문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
① **(전자금융·대부업자)**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(124개사)·대부업자(60개사)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.

- 이용자 수,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 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,
-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, 내부통제체계 구축, 각종 보고업무(STR·CTR 등)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.

② **(카지노사업자)** 코로나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(9개사)\*에 대한 검사를 재개합니다.

\*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는 제주도청에 위탁되어 있음

- 그간 검사 실시내역,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, 영업 제한상황 등을 보아가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.

③ **(기획·테마검사)**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FIU-금감원 간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, 제한된 검사자원을 양적 검사확대 보다는 리스크 요인별 대응\*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.

\* (예) 해외 자회사의 자금세탁 위험, 펌뱅킹 등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등

- ② **(검사수탁기관)**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, 위탁검사의 전문성·일관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
※ 「특정금융정보법(§15)」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(단위조합), 우본(우체국), 관세청(환전업자) 등에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위탁

- ① **(상호금융중앙회\*)** 검사대상 조합수, 검사·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**상호금융중앙회 중 현장점검 대상**을 선정하고,

\*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: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신용협동조합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

- 검사 지적사항·조치기준, 검사대상 선정,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.

- ② **(단위조합·우체국 등)** 검사수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위험·취약 검사대상 등\*에 대해서는 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하겠습니다.

\* (예) 이용자 수 대비 자산규모가 큰 회사,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 제기 회사 등

- ③ **(가상자산사업자)** 신규 업권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 검사를 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.

- ① **(종합검사)**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.

-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·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, 시행 초기 고객확인 의무,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·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.
-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,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

- ② **(부문검사)**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.

-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,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,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.

- 추후 관계기관 논의, 검사계획 구체화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- **(1월말)**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금년 검사대상을 확정하고, 사업자 실태점검(서면)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 마련
  - **(2월 중)** ‘검사수탁기관 협의회’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, 우분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\*도 마련
- \* [주요내용(안)]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비중 확대, 검사수탁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, 위험평가를 반영한 검사대상 선정 등
- **(2월 ~)** 가상자산사업자, 금융회사·카지노사업자·상호금융중앙회 등 FIU·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 착수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